



富遜卿賈錄 속 벼에 풀이 난 땅에서 헛되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노래입니다. 주제는 농사와 농민의 고 苦입니다. 노랫말은 농사의 고 苦를 노래하면서도 농사의 재미를 발견하는 듯한 유쾌한 톤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노랫말은 전통적인 한글 가락과 함께 현대적인 음악 요소가 섞여 있어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.









